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6 Spring Vol.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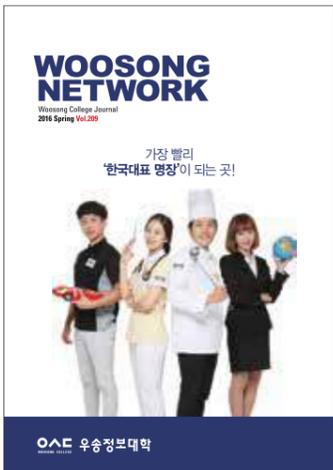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이 되는 곳!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6 Spring Vol.209



발행처 우송정보대학 학보사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발행인 정상 직
주 간 김 주 형
발행일 2016년 04월

우송정보대학 "WOOSONG NETWORK"에 게재할 원고를 수시 모집합니다.

- 대 상 : 재학생, 동문, 교직원
- 모집분야 : 학과 행사 / 동아리 활동 / 취업, 진학, 시험합격 등 체험수기 / 연수 및 여행기
- 접 수 : hakbosa@wsi.ac.kr (042-629-6843)

CONTENS

WOOSONG NEWS | 우송뉴스

04 2016학년도 입학식



05 2016학년도 학생간부 임명식
해외로 가는 뷰티디자인학부

06 글로벌학과, 신입생 영어캠프 시행



07 글로벌명품조리과 · 글로벌제과제빵과 타이 세러머니



언어재활과,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100% 합격
08 디자인 · 영상콘텐츠학부 영상콘텐츠 전공, 공모전 수상
식품영양조리학과,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 수상
09 호텔관광과,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철도교통학부, 2016년도 코레일 인턴사원 10명 최종 합격

WOOSONG FOCUS | 우송포커스

10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자!
12 신입생을 위한 특급 프로젝트!
"우송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14 간호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16 나의 멘토! 교수학습지원센터
17 숨은 조력자, 명장커리어개발원
18 우송 명장경진대회



WOOSONG LIFE | 우송라이프

20 두근두근 교내 썸 타기
24 스쿨버스 타고 봄나들이
26 아직도 모르니? 우리학교 셀카Zone
28 토익 유형 변경 알아두자!
29 도전! 바리스타 자격증

WOOSONG PEOPLE | 우송인

30 또래상담자 활동 경연대회
32 외식조리과 고설현, 한식을 세계에 알리다!



34 자랑스러운 우송인, 서울삼성병원 조은애 간호사
36 영상콘텐츠전공 민경서, 국제 디자인 공모전 대상



WOOSONG PRESS KIT | 우송보도자료

38 이현주 우송정보대학 부총장 "전공, 평생 직업 되길"
"애완동물 너는 내 운명" 전문대 U턴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 7명 영국 직업교육 기관 국제자격증 취득
GM코리아, 우송정보대학 커먼레일 엔진 기증식
39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듀얼공통훈련센터
우송정보대학, 제 1기 요양보호사 관리 책임자 양성 수료식
우송정보대학, 중국 직업학교와 상호우호협약 체결

WOOSONG NEWS

NEWS 1

2016학년도 입학식

2016학번 새내기들의 입학식이 2월 25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동캠퍼스 신입생들은 오전, 서캠퍼스 신입생들은 오후에 진행된 입학식에는 29개 학과의 신입생 2,532명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들과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 정상직 총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을 축하하였다. 우송오페라단의 축하 공연과 실용음악과 김종원 학생의 축가는 입학식을 더욱 빛내 주었다.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한 사회복지과 양홍석 학생은 “평소 원하던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에 입학한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전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직 총장은 “우송의 새 가족이 된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참된 인성을 겸비한 자기주도적인 리더,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한국 대표명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입학식 후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학교 적응 및 한국대표명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우송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학습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



NEWS 2

2016학년도 학생간부 임명식



2016학년도 학생간부 임명식을 3월 17일 솔파인 레스토랑에서 거행했다. 임명식에 앞서 총장님과 학생회 간부들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학생 간부들에게 “리더의 기본 소양을 재학기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 자신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봉사도 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위해 우선 본인을 소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보직교수들과 학생회 지도교수도 참석하여 새로 임명된 학생회 간부들을 격려했다. 32대 총학생회 신호형 회장은

“학생들이 애교심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생활이 미래를 위한 준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학생회 임원들은 임명식 다음날 학생회 운영 및 행사 일정 계획 및 학생회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운영 회의를 진행하고, 2016학년도 학생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NEWS 3

해외로 가는 뷰티디자인학부



지난 2월 2일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Bournemouth & Poole College)로 유학이 확정된 뷰티디자인학부 글로벌뷰티디자인코스 학생들의 해외교육 파견 발대식을 시행하였다. 9명의 학생들은 2월 중순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영국에서 직업교육기관(city&guilds)의 자격과정인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이수할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과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는 1년 중 반은 우송정보대학에서, 나머지 반은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 협약을 2014년에 맺었다. 이러한 협력 교육을 통하여 2015년에는 7명의 재학생이 영국에서 city&guilds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글로벌뷰티디자인코스는 뷰티디자인학부를 지원한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학년 동안 교내에서 집중식 영어 학습과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2학년 1학기에 영국유학을 통하여 국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영국 직업교육기관(city & guilds)의 국제자격증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취업을 위한 공인된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에 글로벌 명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OSONG NEWS

NEWS 4

글로벌학과, 신입생 영어캠프 시행

글로벌명품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과, 글로벌호텔외식과 신입생 140명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우송어학센터가 주관한 신입생 영어캠프가 열렸다. 글로벌학과 학생들은 캠프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어 집중 교육을 받았다.



첫날은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영어시험이 있었다. 학생들은 수준별로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오전에는 학교 수업에 필요한 읽기나 쓰기 기술 향상을 위한 수업과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하였다. 오후에는 호텔 외식과 관련한 전공 실무 영어를 익혔다. 저녁식사 후에는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마지막 날 팀별 프리젠테이션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글로벌호텔외식조리과 학생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3일째가 되니 자연스럽게 영어로 표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입생 영어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우송어학센터 이인환 센터장은 "글로벌학과의 경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캠프가 글로벌학과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NEWS 5

글로벌명품조리과 · 글로벌제과제빵과 타이 세러머니

글로벌명품조리과와 글로벌제과제빵과는 3월 11일 SICA 3층에서 타이 세러머니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요리사의 기본이자 자긍심인 타이를 처음 착용하는 날로, 이사장과 총장을 비롯한 학과 교수들이 직접 타이를 매어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김성경 이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행사에서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졸업 후 계획을 밝히며 각오를 다졌다. 정상직 총장은 대학에서 2년의 시간이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성장의 시간이기 바라고, 현재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글로벌명품조리과와 글로벌제과제빵 학생들은 식음료 및 제과제빵 전문가로서 기능을 익힐 뿐 아니라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 한국대표명장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NEWS 6

언어재활과,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100% 합격

언어재활과 2016년 졸업생 28명이 지난 12월 6일에 실시된 제4회 언어재활사 2급 국가고시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언어재활과 김정연 학과장은 "대학원과 4년제 대학을 포함한 언어재활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두 2급 국가고시에 응시해야하고, 전체 합격률이 81%로 난이도가 제법 높은 시험임에도 전원 합격해 성과가 돋보인다. 이는 자격증 특강과 모의고사,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된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임해 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2011년 8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의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포함되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언어재활과는 3년제로, 지난 2012년에 개설되어 2016년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육청, 사설 언어치료센터 등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다.

WOOSONG NEWS

NEWS 7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영상콘텐츠전공, 공모전 수상

영상콘텐츠전공 민경서 학생은 2015 SOKI 국제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주관)에서 '코렐라인: 비밀의 문'을 주제로 1월 29일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1,200여점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수상작은 TV광고, 인터넷광고, SNS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양지애, 김한별, 문수진 학생이 바른 인터넷 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근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바른 인터넷문화 대상 공모전' UCC 공모전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영상콘텐츠전공은 위의 공모전 수상 외에도 2015년 제로웍 감동영상 UCC 최우수상,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UCC 우수상, 본죽 '정' 대학생 UCC 공모전 인기상, '2014년 제6회 독립기념관 UCC 공모전 대상, 2013년 제3회 경기도시공사 UCC 공모전 금상, 2012년 교통안전관리공단 UCC 대회 금상 등 매년 전국 규모 UCC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며 영상콘텐츠 분야의 명품학과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영상콘텐츠전공 이성한 교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시스템 덕분에 창의성과 실용 능력을 고루 갖춘 학생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21세기 방송영상 분야 및 영상미디어 분야의 창조적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 8

식품영양조리학부,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 수상

식품영양조리학부 김양언 학생이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열린 제 7회 국제프론티어 농업프로테오믹스학회 및 제2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농업프로테오믹스학회에서 'Protoplast culture establishment unlocks a potential system of Solanum sisymbriifolium' 논문으로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맞춰 개최된 유기농 관련 대형 국제 학술대회인 국제프론티어 농업프로테오믹스학회에서 귀화 식물인 둥근가시가지지를 연구한 김양언 학생의 주제는 더욱 돋보였다.

프로테오믹스는 유전자 명령으로 만들어진 프로테옴(단백질체)을 대상으로 유전자의 기능, 단백질의 기능 이상 및 구조 변형 여부를 규명하고 질병 과정을 추적하는 분석 기술로, 이번 학회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9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업 프로테오믹스의 최근 연구동향 및 기술적 응용 등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을 교류하였다.



NEWS 9

호텔관광과,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장흥·강진·영암 일원에서 제79차 한국관광학회 남도국제학술대회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호텔관광과 노서현, 강서림, 김세정 학생은 '지역축제 방문객 수'에 대한 과학적인 집계방법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참신한 관광개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린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축제 방문객 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QR코드 이용, 항공촬영법, 하이브리드 앱 개발 등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융복합 창조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 대학생다운 참신한 발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며 전국적인 표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노서현 학생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골고루 공부하고 경험한 것이 이번 수상에 도움이 됐다. 지역축제가 열릴 때 방문객 수 집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관광과 축제에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 발굴해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 10

철도교통학부, 2016년도 코레일 인턴사원 10명 최종 합격

철도교통학부 졸업생 10명이 2016년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턴사원으로 최종합격하였다. 코레일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인성역량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치렀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체력과 면접 그리고 적성검사를 실시해 인턴사원을 선발하였다. 이번 인턴사원 최종합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과 달리 2016년 인턴사원의 80%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철도교통학부는 기관사가 되기 위한 이론과목 공부는 물론 2학년 2학기에 '우송디젠틸도아카데미'에서 4개월 집중교육훈련을 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송디젠틸도아카데미는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철도차량 교육훈련기관으로 우수한 철도기관사 양성에 큰 힘이 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도 한국철도공사 인턴사원에 대거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준호 철도교통학부 교수는 "철도시장규모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인력양성이 미래 중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 합리적 지식과 기술을 모두 갖춘 철도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자!



비싼 등록금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송정보대학의 든든한 장학제도 알고 계신가요?
 국가장학금은 기본,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교내 장학금은 물론 우송장학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교외장학금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6학번 신입생여러분, 장학금 챙겨 받으셨나요?

학교에 입학할 때 TOEIC 600점 이상(영어), JPT 650점 이상(일본어), HSK 5급 이상(중국어) 등 공인된 외국어 성적이 있다면 수업료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재학 중 성적이 4.0 이상 유지되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어 우송정보대학을 선택했다면? 등록금을 50%~20% 감면해 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다 받아야죠!

국가장학금은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신입생은 성적기준이 없지만, 재학생들은 직전학기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해요. 출석만 잘 하고 수업에 성실히 임한다면 전혀 어려운 기준은 아니랍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한받는 학교도 있다는데요. 우송정보대학 학우들은 모두 안심~ 우리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전국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당연히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학교이기 때문이죠!



그럼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알고계신가요?

취업 및 창업에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70 이상인 학생들은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40시간의 기초교육을 받고, 장학금 수혜횟수(학기)x180일 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 공짜로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하고!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며 취업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미리미리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취업 걱정 뚫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밖에도 우송장학재단과 주심장학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다양한 교외 장학재단의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찾으셨나요? 비싼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하고 풍성한 장학제도!
잘 활용해서 등록금 걱정 없는 생활을 해봐요~

◆ 김애림 기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장학금을 노려볼지 살펴보아요!

한 학기를 마치면 성적이 나오죠. 우리학교 교훈을 따서 자립, 단정, 독행 장학금으로 불리는 성적장학금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무에 최적화된 한국대표명장을 키우잖아요~ 학기별로 명장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입상자에게는 명장장학금을 지급해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스펙도 쌓기 위해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하고 있죠. 경시대회사 작품 공모전 등 대외활동에서 입상한 학생이나 국제, 전국,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대외학술수상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장학금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대학은 원어민 교수님 수업이 필수잖아요. 열정적인 수업을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 금세 향상된 외국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기 당 2회까지 외국어시험 응시로 전액을 지원해준다니, 꼭 챙겨 시험을 보자고요! 게다가 외국어시험은 응시할수록 조금씩 점수가 오르는 것, 아시죠? 취업을 위해서도, 실무를 위해서도 필요한 외국어, 차근차근 준비해 봐요~

멀리서 온 학생들은 기숙사에 살며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복지장학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기숙사 당 3명의 학생이 기숙사에 상주하면서 매일 저녁 점호하고, 주 1회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등 기숙사를 관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예요. 그런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들은 어찌죠? 너무 걱정 마세요!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비 지원도 해 줍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과 사무실과 실습실, 우송도서관, 우송예술회관, 솔베이커리 등 교내에서 일하는 근로학생들이 많습니다. 우정이 홍보학생도 있고, 학보사 기자도 있어요. 학교에서 일도 하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학교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효도장학금으로도 불립니다.

- 재학생 장학금 제도 -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부)별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학과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선발 • 타 장학금 수혜현황 및 가계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선발	• 자립(수업료 60%) • 단정(수업료 30%) • 독행(수업료 10%)
명장장학금	• 학과(부)별 경진대회 입상자 • 학과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선발 • 타 장학금 수혜현황 및 가계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선발	• 자립(수업료 40%) • 단정(수업료 20%) • 독행(수업료 10%)
가계지원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가계소득 분위가 낮은 자(가계곤란자) • 다문화가정 출신자 중 가계소득 분위가 낮은 자 • 장애학생 중 가계소득 분위가 낮은 자 • 국가장학금 신청자: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정금액(국비+교비) 차등지급
우송가족 장학금	• 본 대학에 재학 중인 2인 이상의 직계가족(친결연자) • 부자·녀, 모자·녀, 형제, 자매, 남매	• 소정금액
글로벌해외현장실습 장학금	• 해외현장에 체험학습 우수 연수자	• 소정금액
해외연수 장학금	• 해외대학 연수자 • 경진대회에 우수하게 입상하여 해외산업체 탐방자	• 소정금액
공로장학금	• 학생 간부로서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장, 대의원장, 부의원장	• A급, B급
봉사장학금	• 학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학과 학회장, 과대표 등	• A급, B급, C급
대외학술수상 특별장학금	• 대외 학술활동(경시대회·작품공모전)에서 입상자 • 국제, 전국, 지방대회 입상자	• 대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보훈장학금	•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대상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보훈대상(본인)장학금: 본인이 국가유공 대상자인 자	• 전액(국비+교비)
교직원자녀 장학금	• 우송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	• 수업료50%
복지장학금	• 기숙사 운영에 있어 공로가 있는 자	• 기숙사 관리비
외국어 장학금	• 외국어시험 응시료 지원(학기당 2회 내) • 토익 550점 이상인 자(공인인증시험, 상응하는 점수)	• 소정금액
근로장학금	•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여 학생들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에 근무하도록 선발된 학생	• 시간당 • 월 정액제



신입생을 위한 특급 프로젝트! “우송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6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

우리 학교는 대학생활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송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모두들 즐겁게 참여하셨죠? 우리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한 결과, 리더십과 인성, 학습 방법 그리고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해요.

우선 신입생들에게 특성화된 우리대학을 소개하고 학사 운영과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 복지, 취업과 창업,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 상담 등 다양한 학생 지원에 대해 소개했어요. 대학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대학생들의 자기 관리를 위해 멋 내기와 기본예절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도 있었어요. '새내기 멋'에서는 대인관계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내기 기본 스타일링을 알려주고, 상황과 역할에 맞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소개한 후, 신입생들을 모델로 삼아 개인 이미지에 맞는 자연스럽고 단정한 모습을 찾아 주었어요. 남학생은 커트를 하여 깔끔한 이미지로, 여학생은 굵은 웨이브 헤어로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했어요. 직접 메이크업도 받았는데요, 새내기에게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발랄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완성되었어요!



'새내기 매너스'에서는 개인 이미지 관리 방법, 기본적인 인사 매너, 대화 매너, 공중 매너 등을 알려주었죠. 이런 매너는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생활에도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송정보대학 학생들이라면 기본 매너는 이미 갖추고 있겠죠? ^^

리더십 신입생들의 단합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우송 Style”이라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어요. 학과별로 팀을 나누어 30개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학과 교수님과 어깨동무하여 사진 찍기, 코칭센터와 철도아카데미 등 교내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 카카오프로필 사진을 전송했답니다. 동기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단합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 다양한 팀 과제나 활동을 하게 되는데,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게다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팀 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학생활에서 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송스타일 미션 클리어로 자신감 up!



인성 신입생들의 자기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화통소통 프로그램'이 하루 동안 진행되었어요. ○ □ △ S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같은 도형을 선택한 사람들끼리 조를 이루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같은 도형을 선택한 친구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여 같은 성향의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 친구들에게 칭찬 사위하기 그리고 조언들끼리 롤링페이퍼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학과 동기들끼리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표현하는 기회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어요. 물론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존감도 높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학습법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도 있었어요.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한 개인별 비전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과 시간대별로 스케줄을 작성하여 학업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몰입하는 방법과 집중력 향상하는 방법을 함께 실습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습법 강의를 듣는 동안 배운 대로만 실천하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바~로 적용하여 알찬 학교생활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Super Fun English Game'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신문지 4장에 팀원들이 많이 올라가기, 풍선을 최대한 많이 불어 비닐봉지 안에 많이 넣기, 그 풍선들을 발목에 묶고 다른 팀의 풍선을 터뜨려 가장 많이 살아남은 팀이 승리하는 등 외국인 교수님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온몸으로 영어를 즐길 수 있었어요.



학과별로는 '진로탐색'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과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전공 소개를 했어요. 나의 대학생활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대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목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졸업생 특강으로 졸업한 선배의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자격증 준비 과정과 취업 과정 등을 자세히 알려 주었어요. 게다가 재학 중인 선배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학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서로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우송 새내기 명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학 생활을 신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함께 할 동기들과 끈끈한 관계도 만들었어요. 서로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아 같은 학과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슷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결속력이 생기겠죠. 학습 동기도 향상되었고,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정하여 학습하는 방법과 학점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전공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선배 멘토도 생겨 학과 적응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졸업 후 제 모습도 벌써 기대가 되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만 간다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넘어 한국대표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대표명장을 위하여~ 함께 힘차게 달려보아요~!

❖ 엄철범 기자

간호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간호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의해 실시된 '2015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 받았어요. 인증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이라고 하는데요, 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7개 대학 중 5년 인증을 받은 학교는 우송정보대학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2년 조건부 인증에 그쳤다고 하네요. 역시 우송정보대학이죠?

간호인증평가란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를 배우는 학생들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 교육성과 등에 대해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제도예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배출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있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죠. 우리대학 간호과 학생들은 지금까지처럼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평가위원은 6명(교수 4명, 병원 관계자 1명,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직원 1명)으로 학과 운영 관련, 교육과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실습실 시설,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등 32개 항목을 평가했다고 해요. 많은 항목을 꼼꼼하게 평가받는 것이기에 학과 교수님들의 수고가 가장 컸어요. 인증을 받기 위해 3년 전부터 계획하였고, 본격적인 인증 준비에도 1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인증평가의 근거 자료들이 5년 정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교육과정이나 학과 운영 등이 잘 이루어졌어야 인증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인증평가 준비로 바쁜 중에도 교수님들의 첫 번째 관심은 학생들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아간 자율학습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국가고시 준비도 입학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국가고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의고사와 종합고사 실시 등은 자연스럽게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무와 관련된 특강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남자 간호사들의 비전과 진로 제시와 관련된 특강, 특수 분야(전문 간호사) 특강, 간호부장 특강(신규 간호사의 자세 및 병원 적응) 등이 기억에 남아요. 게다가 평생 책임교수제로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끈끈해서 재학시절 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취업 후 병원 적응과 재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간호과 교수님들의 모든 노력이 인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당연한 거겠죠? ^^

물론 학생들의 노력도 있었어요. 학과의 노력에 잘 부응한 것~ ^^ 개인별 학습포트폴리오 뿐 아니라 간호과의 활동 스토리를 담은 포트폴리오 제작도 인증 결과에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인증평가 항목에는 핵심기본간호술(이하 핵심술기) 평가가 있습니다. 핵심술기는 간호사가 임상에서 쓰는 20가지 핵심적인 기술인데, 핵심술기 수준이 간호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평가하여 학생들의 현실실무능력을 파악하고, 학과의 간호교육 인증을 하고자 함이죠. 평가 당일 3학년 학생들을 3명 선발해 테스트하기 때문에 전체 3학년 학생들은 여름방학에도 기본간호술기를 점검하고 기초를 탄탄히 했어요.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도 쑥 늘고, 인증에도 도움이 되고!

간호과의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수님들의 노고, 학생들의 노력이 모두 모여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죠! 2010년부터 차곡차곡 쌓인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학생들이 한국대보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이상훈 기자

나의 멘토! 교수학습지원센터

혹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알고 계신가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잘 가르치고 잘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교수자의 교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수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최신 교수법을 공유하고 적용하기 위해 교수법 특강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교수법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모두 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습법 클리닉과 더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상담 전문가와 1:1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학습법 특강이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교과목 내용이 이해가 되지만, 혼자 공부하려면 잘 못하겠다는, 공부 방법이 어렵다는 학생들, 정말 많죠? 학습에 도가 튼 저명한 강사들을 모실 뿐 아니라 학과 및 계열별로 특강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특강이 실시된다 하니 내게 딱 맞는 학습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튜터링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해요. 바로 우송튜터링인데요,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후배 및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직전 학기 A0 이상)가 튜티(직전 학기 C+이하)에게 학습방법과 전공교과목 내용을 알려주고 함께 공부를 하죠. 학기 당 주 1회 2시간 이상, 총 20시간 이상을 함께 공부하는 튜터링 활동을 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학기말에는 효과적인 학습방법 및 튜터링 결과 발표회를 가지고 우수팀을 선정하여 수상도 한다고 하네요. 우송튜터링을 통해 함께 공부도 하고 선후배들, 동기들끼리 친목도 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님들에게 방법을, 학습활동에 도움을 받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고 싶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오늘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활용해 봐요~

❖ 이채원 기자



숨은 조력자, 명장커리어개발원

여러분들은 명장커리어개발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명장커리어개발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명장커리어개발원에서는 취업과 진로를 위해 필요한 전문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캠퍼스 대학본부(E4)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우 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 분의 교수님들이 우리 뒤에서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기초교양(창의/문화/정보)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 총 4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첫 번째, 혹시 입학하고 처음 치렀던 시험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은 대학생들 향상을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기초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계획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과별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충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학과 및 개발원에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랑 소통을 원만히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말이에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능력, 인성과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등을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해요. 명장커리어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직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학과별로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선정하면 명장커리어개발원에서는 해당되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교과를 개설하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양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화로운 인성, 가치분별력, 합리적 태도, 심미적 감성, 창조적 사고력 등을 기르는 교육을 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초교양은 이미지메이킹, 여행과 사진, 커피와 바리스타, 건강과 생활, 사회봉사, 컴퓨터그래픽 등의 교과목으로 재학 중 최대 3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명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글로벌 프로그램은 외국어로 기술된 자료를 이해하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개인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토익 영어시험에 대비하는 토익영어, 인터넷영어와 카툰영어 등 재미있는 영어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국문화 및 일본문화의 이해라는 수업도 있답니다.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싶은 학생들! 명장커리어개발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



우송 명장경진대회

우리학교는 한국대표명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학교 모든 전공에서는 매학기 그동안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우송 명장경진대회!** 그럼 함께 경진대회 현장에 가보시겠어요?

우선 뷰티디자인학부 경진대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뷰티디자인학부에서는 할로윈 데이와 맞아 아주 특별한 페스티벌인 '우송 뷰티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페스티벌을 위해 뷰티디자인학부 학생들은 콘셉트를 정하고, 콘셉트에 맞는 분장을 하고, BMG까지 준비하여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뷰티디자인학부의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전공 학생들 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했어요. 시끌벅적한 파티 중에 뷰티디자인학부 정지영 교수님을 잠시 만나보았어요.

Q. 할로윈페스티벌, 참 좋은데요. 어떻게 주최하게 됐나요?

학생들이 의욕 없이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할로윈페스티벌을 생각했어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네요.

Q. 뷰티디자인학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건가요?

네. 메이크업 전공 뿐 아니라 헤어와 피부 전공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합니다.

Q. 메이크업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학생들이 직접 분장했나요?

직접 하죠. 모든 전공에서 메이크업 기초를 다루요. 피부나 헤어 전공 학생들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 취업하게 되면 할로윈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스스로 얼굴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하게 합니다.

Q. 분장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정도였나요?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고 학생들이 1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니 대략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실제 준비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콘셉트를 정하고 메이크업을 배우고 연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Q. 분장을 지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우기 힘들고 얼굴에도 자극돼요. 인조 피부도 직접 만든 거예요. 물엿이랑 색소랑 같이 섞어서 만든 거라 먹을 순 있지만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니 보람 있네요.



할로윈페스티벌에서는 뷰티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창의적 디자인 연출과 무대분장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감탄을 자아냈던 만큼 뷰티디자인학부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2016년 뷰티디자인학부의 할로윈페스티벌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뷰티디자인학부에서도 '우송 뷰티경진대회'를 통해 전공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어 꿈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Q. 퍼포먼스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보시다시피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나 봐요. 댄스 하던 여경찰 컨셉 학생들은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마녀 팀도 늦게까지 계속 남아서 뭔가 만들었는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거 같아 제가 더 아쉽네요.

Q. 의상도 직접 준비했나요?

의상은 학생들이 각자 준비했어요. 찢어도 될 만한 옷을 가져오거나 어떤 학생들은 옷을 세트로 샀어요. 재료비가 워낙 비싸게 많아서 개인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장 재료도 아주 비싸요. 학교에서 재료를 지원해주어서 다행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페스티벌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Q. 올해 할로윈 파티는 어떠셨나요?

작년에는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만 퍼포먼스를 하고 헤어와 피부 전공 학생들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사진 찍는 것만 했었거든요. 올해 모든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다보니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에 비해 헤어와 피부 전공 학생들은 부끄러워서 퍼포먼스가 파격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Q. 시상은 어떻게 하고, 어떤 보상이 있나요?

쇼 형식의 퍼포먼스 평가와 SNS 홍보 평가를 하여 퍼포먼스를 통한 우수 연출팀을 선발하여 학교에서 장학금이 주어지고요. SNS에 조별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15일 후 공유 및 '좋아요'를 많이 받은 팀에게 홍보상도 준답니다.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의 경진대회도 살펴볼까요?

귀금속디자인전공에서는 창의성을 개발하고 디자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했어요. 학생들은 기획부터 주얼리 렌더링, 높은 수준의 작품 제작으로 자신감을 얻고 개인 포트폴리오 작품을 구축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글로벌실용음악과도 볼거리가 풍부했죠?

대한민국 실용음악 현장의 명장유지선을 양성하는 글로벌실용음악과는 이미 VOS의 박지현, 최현준, 김경록, 신화의 이민우, 김동완, Fly To The Sky의 환희, 제국의 아이들의 보컬 임시완 등 수많은 실력파 가수들을 배출했죠! 당연히 재학생들의 무대가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10개 팀이 자유곡을 선정하여 기량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미래 스타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컬의 표현과 정확성, 태도와 매너, 연주와 안무, 프로듀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글로벌실용음악과 경진대회! 우송예술회관에서 실시된 경진대회는 우리들에게도 오픈되어 있으니, 내년에는 멋진 무대를 직접 확인하러 갈까요?



글로벌제과제빵과에서도 지난 12월 11일 '2015 SICA Culinary Challenge'를 개최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재량을 보여주고 미래의 제과제빵사의 모습에 한발 가까이 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학생들은 원가 30,000원 이내의 재료로 주어진 시간 내에 요리를 만들고, 영어로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역시 글로벌학파만큼 영어 설명도 정확하고, 영어 발음도 멋지던걸요.



언어재활과는 언어치료 교구 제작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언어치료 대상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치료 교재 교구의 한계가 있고, 특히 일반화를 위한 치료 교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고, 아동 수준에 맞는 교구의 제작으로 실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구를 직접 만드는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돼요.



외식조리과에서도 흥미로운 경진대회를 개최했네요.

'레스토랑 창업 메뉴개발(MFR: My First Restaurant)'이 주제였어요. 조리전공 학생들의 조리 관련 지식과 기술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물론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4~5명이 한 팀을 이루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1.복장 및 위생(10점) 2.맛, 향, 풍미(20점) 3.메뉴의 구성(20점) 4.전시구성 및 내용(20점) 5.발표태도(10점) 6.스토리텔링과 메뉴간의 조화(20점)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네요. 이번 대회를 통해 메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음식간의 조화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두근두근 교내 썸 타기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하고 있는 캠퍼스 커플 그리고 썸 타는 훈남 훈녀 학생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교내 데이트 장소를 소개합니다!

❖ 김동희 · 이채원 · 염철범 기자

1 슬파인베이커리

서캠퍼스
우송타워(W13)
1, 2층



우리학교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슬파인베이커리**는 無공해, 無첨가의 빵과 케익을 자랑하는 베이커리카페입니다.

알뜰하게 이용하는 슬파인!

- SKT멤버십 회원에게 10%할인!
- PM 12:00~3:00에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
- 재고가 남을시 PM 5:30 이후 반값 할인!!
- 인기 많은 Bread: 삼각토스트, 계란토스트

분위기 좋은 슬파인베이커리~
맛있는 빵과 은은한 커피 한잔!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슬파인베이커리에서 가벼운 데이트, 어떤가요?

2 슬카페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1층



여기는 동캠퍼스 친구들이 자주 애용하는 **슬카페**입니다!
커피와 차, 스낵류, 제과류도 판매하고 있는데 맛은 물론! 가격까지 착하답니다.
내부도 정말 넓고 깔끔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이곳에서 과제를 하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달콤하고 따뜻한 느낌의 슬카페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시원하게 뿜어있는 창문을 통해 봄 향기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3 우송 스포츠센터

동캠퍼스
체육관(E5) 1층 /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W5) 2층



우송 스포츠센터 시설이 정말 좋죠?
외부 스포츠센터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곳입니다.
따뜻한 봄날, 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한다면?
여름을 기다리며 다이어트를 하는 그녀라면?
우송 스포츠센터로 출발~



센터 이용하시려거든! 필독!

- 교직원/학생들은 1개월에 2만원, 3개월에 4만5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
- 평일 06:00~22:00, 토요일 08:00~16:00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일요일 및 공휴일 쉼)
- 운동복 및 운동화는 필히 착용하셔야 되고요, 수건도 따로 가져 오셔야 됩니다.

썸 타는 그녀와 가까운 우송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운동하는 건 어떨까요?
이곳에서 건강도 챙기고, 가벼운 스킨십도 시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설렘 가득한 데이트도 즐기고 일석이조의 기회!

우송정보대학 건강 지킴이 **보건실**을 소개합니다!
병원만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건실!
혹시라도 몸이 안 좋거나 다쳤을 땐 보건실을 이용해주세요!

보건실 이용 Tip!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이용 시 데스크에서 학과와 이름을 적어주세요.
- 너무 아파 좀 누워있고 싶다면 안쪽 침대에서 쉬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썸녀, 썸남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른 보건실로 오세요!
날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게 될지도~?



4 보건실

동캠퍼스
학술정보센터(E3) 1층 /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W5) 2층



5 스타리코카페

서캠퍼스
SICA(W12)
2층



스타리코카페는 나만 알고 싶은 비밀 카페입니다. 우송타워와 체육관 사이에 있는 예쁜 SICA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캠퍼스 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우송고등학교 맞은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최고급 일리 커피와 로네펠트 티를 취급하지만 가격은 저렴해요. 파티쉐 외국인교수님들이 상주하여 크로와상과 시나몬롤, 케이크까지 수준 높은 디저트를 맛볼 수 있어요. 퀄리티 높은 그녀에게 딱 어울리는 카페네요!



6
솔코리안
레스토랑
솔브릿지국제대학
1층



우리 전통의 멋과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솔코리안레스토랑**은 어떠신가요?
'솔코리안레스토랑'은 정성으로 담아낸 최고의 한식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다면 정말 좋겠죠?

다정하게 앉아서 서로 음식을 골라보아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7
솔도리
비스트로
솔브릿지국제대학
1층

솔도리비스트로는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꾸준한 신메뉴 개발로 항상 새로움을 선보이는 음식점입니다!
평범한 요리는 싫다! 그렇다면 솔도리 비스트로에서 퓨전요리 어떤가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세계의 맛을 느끼러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8
솔도리카페
솔브릿지국제대학
1층

신선한 원두 향이 풍기는 이곳은? 바로 **솔도리카페**입니다.
달달한 분위기 속에 멋스러운 조형물까지! 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이곳은 다양한 음료뿐만 아니라 신선한 샌드위치와 케이크도 준비 되어있는 달콤한 공간입니다.

케이크를 먹을까 샌드위치를 먹을까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9
우송도서관
서캠퍼스 W1

방대한 지식을 쌓고 꿈을 향하여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곳!
우리학교 **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천여 석의 열람실과 소강당, 우송미술관 등 중부권 최대의 도서관이라 해요. 2004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뽑힐 정도로 외관도 수려하지요.

모르고 가면 손해~ 도서관 Tip!

- 5권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10일 이내에 반납 해 주는 센스!
- 반납일이 휴관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반납할 수 있고, 대출된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
- 아쉽지만 졸업 예정자는 졸업 3개월 전부터 대출을 중지합니다!
- 자료실은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일반 열람실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시험기간에는 24시간 운영합니다!

시험기간에 쌤남, 쌤녀와 같이 조용하고 아늑한 도서관에서 데이트 겸! 공부 어떠세요? 지적인 나의 모습을 어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DVD도 있으니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쿨버스 타고 봄나들이

여러분은 스쿨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선의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스쿨버스는 통학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아니,죠!
 내 집 앞을 다니는 스쿨버스, 스쿨버스에 올라타고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스쿨버스는 당연히 무료로, 저녁 6시 10분, 동캠퍼스에서 출발해 서캠퍼스를 거쳐 갑니다~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서 노선을 확인하고 봄내음을 느끼러 지금 출발해보아요~



〈출처: <http://saleru1004.blog.me/220337645235>〉

1노선
신탄진

• 첫 번째 코스로 1노선 신탄진행 버스를 타고 떠나보아요.

신탄진 한일병원에서 내린 다음 조금 걷다 보면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그곳부터 신탄진동에 위치한 KT&G까지 걸어보세요. 벚꽃 시즌에는 KT&G 회사를 개방하는데, 길 따라 흐드러진 벚꽃도, 넓은 잔디밭에 예쁘게 핀 벚꽃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되고 왕 벚꽃이라 그 풍경이 전국 최고라고 하네요.
 그 주변을 걸으면서 봄꽃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출처: <http://blog.naver.com/naraa1223/220325442202>〉

2노선
송강동

• 두 번째 나들이 코스는 2노선 송강동행 버스를 타고 갑니다.

보건전문대 입구 한일협동조합 맞은편에서 내려 대전보건대학교로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면 환상의 벚꽃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 벚꽃길을 쭈욱 따라가다 보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쌓던 우암사적공원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우암사적공원에는 예쁜 연못과 옛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따사롭고 여유로운 봄산책을 하면서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다음으로 충남대 꽃길축제에 한번 가볼까요?

4노선 유성A행을 타고 SK행정도시주유소에서 내리면 가까워요. 충남대 꽃길축제는 4월 중순 경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길거리 부스가 많이 생겨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길~게 이어진 꽃길을 보면 답답했던 속이 땡 뚫릴 것 같네요!



〈출처: <http://blog.naver.com/dewdoll/185309426>〉

4노선
유성A



〈출처: <http://blog.naver.com/dewdoll/185309426>〉

6노선
신도안

• 이번엔 6노선인 신도안행 스쿨버스를 타고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가수원육교 또는 정림육교 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내린 다음 700m 이내에 위치한 무궁화공원! 길 따라 봄바람 맞으며 산책 어떠신가요? 벚꽃축제 기간에는 먹거리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생태호수공원도 있으니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걸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 테미공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7노선 가장동행을 타고 병무청 맞은편에서 내리면 가까워요. 테미공원에 가시면 깜짝 놀랄실 거예요.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일명 도심 속 꽃섬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웅장하고 멋진 1000여개의 벚꽃나무들이 4월 중순을 전후해 눈꽃송이처럼 만개하는데요. 공원 조명과 어우러져 야간에도 벚꽃을 매력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벚꽃 숲에 들어가 두 팔 가득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정화될 것만 같은 힐링의 숲이랍니다.



〈출처: 대전일보 2008년 4월 22일자 기사〉

7노선
가장동

❖ 김동희 · 이채원 기자





아직도 모르니? 우리학교 셀카Zone

❖ 김동희 · 이채원 기자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다고?
우송정보대 훈남, 훈녀 학생들, 우리학교를 자랑하고 싶은 학생들,
예쁜 커플사진을 찍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출동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캠퍼스의 숨은 명소를 전격 공개합니다!

#place 1. 우리 학교의 중심, 서캠퍼스 우송관(W7)

우리 학교의 중심 건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너무 예쁜 장소!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찍던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알록달록 화사한 우송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봐요~



#place 2. 서캠퍼스 우송타워(W13) 앞 계단

공강시간에는 시원하게 쪽 뺏은 나무를 바라보며 등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솔파인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빵과 커피를 사들고 등나무 계단에 나란히 앉아 친구들과 우정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place 3. 서캠퍼스 사회복지융합관(W10)에서 보건의료과학관(W5)으로 올라가는 길



왓~ 여기가 캠퍼스라고?
우송유치원과 우송관 사이로 쪽 뺏은 길은 봄이 되면 더욱 낭만적인 길이 됩니다. 유치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이 되어 기분이 마구 좋아집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곳을 느껴보세요~
주욱 늘어선 개나리꽃과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추억을 남기는 건 덤입니다~

#place 4. 서캠퍼스 대운동장(잔디구장)

우송도서관(W1)과 공학관(W4) 안쪽에는 넓은 잔디구장이 있어요. 벚꽃나무들과 길게 쪽 뺏은 개나리길, 그리고 넓은 초록 운동장! 날씨 좋은 날 초록 운동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진정한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잔디구장 따라 노란 개나리길을 산책하며 찍는 자연스러운 사진 어떠세요?



#place 5. 서캠퍼스 교양교육관(W6) 가는 길

봄 향기가 풍겨오는 이곳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양교육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푸릇푸릇하고 불긋불긋한 나무들 보이시나요? 친구나 연인과 함께 다정한 사진을 찍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캠퍼스 하면 떠오르는 예쁜 벽돌 건물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장소랍니다!



#place 6. 서캠퍼스 우송관(W7) 뒤쪽 푸른쉼터

여긴 몰랐지?!
우송관 뒤쪽으로 가다 보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푸른쉼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해보아요~ 푸른 나무들과 함께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place 7. 동캠퍼스 운동장으로 가는 길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이곳!
동캠퍼스 정문을 따라 들어오면 내리막길을 지나 평평하게 쪽 뺏은 운동장 가는 길! 벚꽃도 구경하고 여유롭게 걸으며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봐요~
어떤 포즈로 찍어도 그림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장소랍니다!



#place 8. 동캠퍼스 운동장 계단

동캠퍼스 넓은 운동장 예쁜 붉은색 계단!
계단 위에 서서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계단 아래에서 찍으면 얼굴이 작아 보인답니다.
선명한 붉은색 배경이 내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장소. 이곳에서도 추억 한 장 남겨보아요~



#place 9. 동캠퍼스 전망대

가슴이 답답한 우송인들 모두 모여라! 잠시 답답한 마음을 내려두고 하늘 가득 두 팔을 벌려볼까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노을이 질 때쯤이면 더욱 낭만적인 장면이 연출되겠죠~



TOEIC 유형 변경 알아두자!

취업준비생의 관심사 중 하나인 토익 시험 유형이 변경됩니다. 2006년 이후 10년만의 변화로, 2016년 5월 29일 시험부터 시행됩니다. 新 토익은 다양한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난이도가 살짝 높아져 토익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우선 토익유형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新 토익에서도 문항수(LC 100문항, RC 100문항/총 200문항)와 문제 풀이 시간(LC 45분, RC 45분/총 120분), 점수(LC 5점~495점, RC 5점~495점/총 10점~990점) 그리고 전 문항 객관식, 답안지에 Marking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변경 내용이 상당한데요.

LC(듣기 평가)는 사진 묘사와 질의응답 문항수가 감소하고 짧은 대화 문항수가 증가합니다. 문제 유형도 변경되는데요. 도표나 그래프 등을 이용하는 시각적인 정보를 보고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일부 대화문의 말 길이가 짧아지는 대신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두명이 나누던 대화가 세명 이상 함께 대화하는 문제로, 말하는 이의 의도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RC(읽기 평가)의 유형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에서도 문항수와 문제 유형이 변경되었는데요. 단 문공란 메우기 문항수가 줄어드는 반면, 장문 공란 메우기와 단일지문과 이중지문 문항수가 증가합니다. 문법 관련 문항이 줄어들고 지문 중간에 들어갈 맥락에 맞는 문장을 찾는 단가 주어진 지문이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찾는 등 흐름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추가됩니다.

현행 TOEIC vs 2016 新 TOEIC 변경 내용

1. 듣기 평가 (Listening Comprehension)

현행 TOEIC			2016 新 TOEIC		
part	part별 내용	문항수	part	part별 내용	문항수
1	photographs (사진묘사)	10	1	photographs (사진묘사)	6
2	Question-Response (질의응답)	30	2	Question-Response (질의응답)	25
3	Conversations (짧은 대화) - 10 conversations - 3 questions per conversation	30 (3×10)	3	Conversations (짧은 대화) - 13 conversations - 3 questions per conversation	39 (3×13)
4	Talks(설명문) - 10 talks - 3 questions per talk	30 (3×10)	4	Talks(설명문) - 10 talks - 3 questions per talk	30 (3×10)
계	Total	100	계	Total	100

2. 읽기 평가 (Reading Comprehension)

현행 TOEIC			2016 新 TOEIC		
part	part별 내용	문항수	part	part별 내용	문항수
5	Incomplete Sentences (단문 공란 메우기)	40	5	Incomplete Sentences (단문 공란 메우기)	30
6	Text Completion (장문 공란 메우기)	12 (3×4)	6	Text Completion (장문 공란 메우기)	16 (4×4)
7	Single passage (단일 지문) - 9 single passages - 2~5 questions per passage	28	7	Single passage (단일 지문) - 10 single passages - 2~4 questions per passage	29
	Double passages - 4 double passages - 5 questions per set	20		Multiple passages (복수 지문) - 2 Set-Based double passages - 3 Set-Based triple passages - 5 questions per set	25
계	Total	100	계	Total	100

전체 시험시간은 동일하지만~ 新 토익에서는 특히 독해의 비중이 높아진 것 같네요. 토익 유형 변경사항을 잘 알고 준비하여 고득점을 향해 달려봅시다!

우리 학교에서는 연 4회 모의토익을 시행하고 있고, 학기 당 2회까지 토익 응시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익 550점 이상이면 외국어장학금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장학금 신청도 잊지 마세요~

❖ 전문아 기자



도전! 바리스타 자격증

매일 마시는 커피,
커피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 많죠?
하루 한 시간으로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



최근 하루 자고 나면 커피전문점 하나가 생기고, 하루 지나면 또 하나의 매장이 개업하는 바야흐로 커피전문점 시대가 열렸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도 많이 생겨나고, 다양한 커피를 즐기다 보면 정식으로 배워서 제대로 된 커피향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도 들죠? 취미든, 미래를 위해서는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고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협회에서 운영되는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협회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 종류는 50여종 이상이라고 하네요. 물론 어느 협회이던지 자격증은 인정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국내는 한국커피협회(<http://www.kcc-coffee.org>)와 대한커피협회(<http://kcccoffee.alltheway.kr>)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위 협회에는 1급과 2급 바리스타 자격이 있고, 1급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2급 바리스타 시험을 준비해야겠죠? 시험은 크게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집니다.

필기시험 (50문항)
 가. 출제범위 : 커피학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나. 출제형태 : 사지선다형
 다. 시험시간 : 60분

실기시험
 가. 시험의 범주 : 사전준비자세, 에스프레소의 평가, 카푸치노의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나. 시험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평가자를 3인의 평가자가 평가
 라. 시험시간 : 사전 준비시간 5분, 시연시간 10분

필기시험은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각 협회의 문제집을 구입해 하루에 한 시간, 열흘 정도만 준비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60만원이라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용돈도 벌고, 커피 추출하는 것도 배우고, 자격 취득도 하고! 게다가 유튜브에는 각 협회의 실기시험 재현 동영상이 공식적으로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눈에 익힌 뒤 연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장님께 양해는 구해야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일타이피, 원샷투킬 아닐까요? ^_^

❖ 이상훈 기자

또래상담자 활동 경연대회

우리 학교에는 또래상담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자는 재학생 상담자로, 친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대학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학생코칭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을 통해 상담자를 선발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을 찾도록 하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관계를 맺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고 있어요.

❖ 이상훈 기자

지난 12월 29일 이루어진 '또래상담자 활동 경연대회'는 재학 중인 또래상담자 145명들이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였어요. 총장님은 격려사를 통해 또래상담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어 감사하고, 또래상담자 역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연대회는 또래상담자들이 1년간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태도와 또래상담을 통해 느낀 점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우들의 대학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도와준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였기에 또래상담자들의 고민이 묻어났고, 개인적인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소감도 많았습니다. 경연대회에 참가해 3등을 수상한 사회복지과 금민지 학생과 만나 또래상담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또래상담자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래상담자는 타인에 대해 진정함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삶과 행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기에 자신을 이해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특별히 생각나는 상담 사례가 있나요?

과거 남자친구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이성애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웃음이 많고 친화력이 좋은 학생이었는데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먼저 자신을 아끼고 보듬어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자고 격려했어요.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지 않고 개인적인 특성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애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상담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내담자가 관심을 가지는 이성친구가 생겨 상담자로 너무 뿌듯했습니다.



Q. 수상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대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예요.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도 많이 했고, 프리젠테이션 경험도 많아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또래상담자 활동을 통해 상담자의 역할을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발표 상황에서도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점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요.

Q. 대회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제한된 짧은 발표시간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모두 펼쳐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또래상담자에 도전해 보세요! 인간관계의 기본원리와 교우관계에서 우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방법,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에 관한 4주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른들보다는 눈높이가 맞고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래상담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돕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끈끈함이 생기는 건 상담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굉장한 경험일 테고요. 친구들을 도와 보람도 느끼고 상담자 자신도 부쩍 성장한다는 또래상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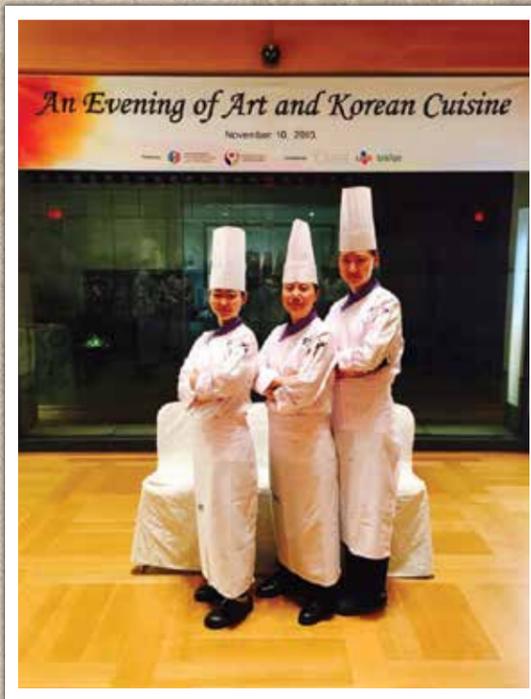
2016년에도 또래상담자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외식조리과 고설현, 한식을 세계에 알리다!

◆ 김동희 기자

지난 10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문대학 한식드림(Dream) 경연대회」를 개최했어요. 예선을 거쳐 참석한 전국 22개 대학이 벌인 경쟁한 경쟁에서 당당히 금상을 거머쥔 우리 팀! 경연대회에서 우수팀으로 선발된 6개 전문대학 교수 6인, 학생 12인으로 '한식드림팀'이 구성되어 11월, 한식 홍보 사절단 으로 뉴욕을 찾았습니다. '한식드림팀'은 세계 각국의 대사급 외교관들과 40여 UN 대사와 UN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개발한 7가지 한식 만찬을 선보여 한식의 맛에 흠뻑 빠지게 했다는데요. 자, 그럼 함께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 고설현 학생을 통해 뉴욕을 만나볼까요?



Q. 외식조리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터 요리학원에 다녔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을 통해 우리 대학 외식조리과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송정보대 대학 외식조리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많은 사람들이 외식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아시다시피 외식조리 분야는 매우 넓어요. 외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죠. 외식조리는 호텔, 레스토랑, 식당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외에도 마케팅이나 음료 같은 여러 분야를 다룹니다.

Q.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게다가 대회에서 수상하면 뉴욕에 갈 기회가 있다고 해서 꼭 실력을 쌓아 뉴욕에 가고 싶어 지원했어요. 세계 음식문화의 중심인 뉴욕의 외식산업을 경험할 수 있고,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를 견학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Q. 대회 준비과정은 어떠셨나요?

준비기간이 여름방학이었어요. 황현주 교수님과 김진아 선배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 팀을 이룬 대회였기 때문에 여름방학 내내 학교에서 살았어요. 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 많이 연구했고, 메뉴도 자체 개발하고 매일 요리 연습을 하면서 2개월을 꼬박 준비를 했어요. 파트너 선배와도 호흡이 잘 맞아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기뻐요.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디어에 조희숙 선생님(한식문화연구가)의 자문을 받아 세달 정도 높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Q. 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본선 경연장에는 학생 2명만 입장 가능해요. 지정 메뉴인 한식 어선과 주요리 1품, 후식 1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한시간이 2시간 30분이었어요. 식재료와 조리도구, 그릇 등도 모두 준비해 가야 해서 대회 전날까지 꼼꼼히 체크를 했고, 당일 오전에는 밀재로 손질을 하고 육수를 내는 등 사전 조리를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바빴어요.

Q. 뉴욕에서 대사관들에게 소개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나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생각으로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거듭했어요. 전복선을 시작으로 녹두삼계선죽, 광어살 전유어 전골, 궁중갈비찜, 비빔밥, 후식인 꽃감배숙과 모듬한과를 코스로 제공했어요. 저희는 꽃감배숙과 모듬한과를 요리해 깔끔한 마무리를 맡았어요. 음식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에 이롭고 한식의 전통적인 맛을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Q. 뉴욕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뉴욕에서 그들의 외식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뉴욕에 간 이유는 UN 만찬 때문이었어요. 각국 대사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코스로 대접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곳의 조리 시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한식을 알리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어요. 세계 각국 유엔대사 내외분이 저희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한식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진 것 같아 가슴이 벅차네요.

Q. 대회 참가자로서 이 대회를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해줄만한 대회였나요?

추천은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역별로 많은 대학이 참가해서 각 지역에서 1등을 한 팀에게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회 준비기간도 길고, 준비 과정에서 여러 고충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꼭 한번 대회에 나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곧 문화죠.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세계 중심도시인 뉴욕에서 한식의 맛을 알린 문화외교 사절단 '한식드림팀'.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드린다는 의미와 미래를 여는 희망의 꿈(Dream)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랍니다. 한국대표명장으로 뉴욕에까지 진출한 고설현 학생은 글로벌 셰프로 한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식조리과 고설현 학생, 멋지십니다!



Q. 외식조리과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외식조리는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한창 멋 부릴 나이인데 화장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향수를 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에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송인, 서울삼성병원 조은애 간호사

지난 우송학원 61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우송인상을 받은 2015년 간호과 졸업생 조은애 선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조은애 선배님은 곧바로 우송대학교에 편입하였고, 졸업 전 서울삼성병원에 조기취업하였다는데요, 서울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은애 선배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박현아 기자



제가 입학 때부터 생각한 것은 대학 시절에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학업에 열중한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활동들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보낸 알찬 시간들 덕분에 사회생활도 능동적이고 즐겁게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 부

식상한 말이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대학공부가 평생 직업과 연결이 되죠. 처음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에는 평소 공부를 꾸준히 하지도 않고 벼락치기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목표가 생기면서 공부에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약했던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였고 저만의 요약노트를 만들기도 하였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의 공부는 학점을 받는 공부라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시 면접 때에도 지식을 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및 교내외 활동

의미 있고 활력 있는 대학생활을 위해 우선 동아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금연서포터스 6기에 선발되어 활발한 금연홍보 활동('건전지'동아리)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받아 동기들과 같은 티셔츠를 입고 금연 활동을 펼치며 소속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죠. 캠퍼스 내에서 금연서약을 받아내고 금연보조물품들을 나눠주며 응원을 하는 이 활동은 간호과 학생으로서, 굉장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어요.

교내활동으로는 '포래상담사'를 했어요. 동기들 및 선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며 상담해주고, 익명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담사들끼리 회의를 하며 의견을 나누는 활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을 접할 수 있고 동료 상담사들과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포래상담사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학생코칭센터 선생님들의 조언도 가까이 들으며 상담방법, 의사소통 기술 또한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 내내 저와 함께했던 활동은 바로 '학보사'입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글쓰기 TEST를 보고 총장님 면접까지 거쳐 교내 신문을 만드는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첫 기사는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3년이나 지속된 학보사 활동을 통해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자기소개서를 작성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내외 행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학교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글을 통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보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봉사 활동

한 부모 가정 아이의 멘토 역할을 신청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웃음과 말이 없던 아이가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저로 인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재미있게 해서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저는 학교생활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서비스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경제관념 또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 불안감에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고 지습시간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되는 활동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꼭 경험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 입

간호과의 경우 우송대로 편입할 경우, 1년 과정만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편입 후에도 다양한 교과목 공부를 하고, 전공을 영어로 익히기도 하면서 바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사회봉사 과목도 신청하여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욕심이 있다면 편입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취 업

제일 먼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대학생활의 다양한 활동 경험들이 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태도도 중요하합니다. 동기들과 면접스터디를 만들어 면접관, 지원자의 역할을 해보기도 하였고 서로 면접 보는 태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모의면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평소에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노력도 했어요. 지원하는 병원에 대해 정보를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으며 간호지식 공부도 전체적으로 훑으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면접마다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원하던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고 항상 응원해준 주위사람들의 감사함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콘텐츠전공 민경서, 국제 디자인 공모전 대상

아이디어와 기획, 제작의 집합체 공모전!

매년 수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공모전에서, 국내도 아닌 국제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란 쉽지 않죠. 우리대학의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방법과 학생들의 열정이 뭉쳐 국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니다! 그 주인공은 디자인·영상콘텐츠 학부 영상콘텐츠전공에 재학 중인 민경서양! 그녀가 어떻게 국제 공모전을 준비하였는지 알아보까요?

❖ 김애림 기자



Q. 대상을 받은 공모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19회 SOKI 국제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은 전 세계 천명 이상의 대학생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공모전 이예요.

Q.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어떻게 이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평소 과제를 하면서도 교수님을 자주 찾아뵙고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곤 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더니 SOKI 국제 디자인&일러스트 공모전을 추천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Q. 어떤 주제로 참여하였나요?

판타지 애니메이션인 '코렐라인: 비밀의 문'으로 주제를 잡아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Q.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몽환적이고 동화 같은 영상을 좋아해요. 그중에 크리스마스 의 악몽, 유령 신부 등의 작품을 특히 좋아하는데 보면서 '나도 저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아하는 작품 중에서 고민하다가 '코렐라인: 비밀의 문'이라는 작품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어요.

Q. 공모전 준비 과정을 알고 싶어요.

우선 공모전 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인 사람인 공모전 (<http://contests.saramin.co.kr>)과 위티비(<http://www.wevity.com/>)나 씽유(www.thinkcontest.com) 등에서 주제와 일정을 확인한 후 관심 있는 분야의 공모전을 선택해요. 하지만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는 교수님 추천이라 이 과정은 없었어요. 공모전을 정하면 주제에 맞춰 아이디어를 짜고 스토리보드를 그려요. 영상에 대한 이미지나 장면을 미리 그리는 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촬영 시작 전,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해요.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moving을 주고 원하는 효과를 주는 등 최종 작업을 합니다.



Q.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아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교수님께 그림체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제가 지도받은 대로 그림체를 바꾸어 그렸더니 생각한 그대로 그림이 잘 나왔어요. 순간순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조언해주셨고 교수님의 아이디어도 많은 도움이 되어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Q.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을 때의 기분은 어떠하였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처음에 교수님께 얘기를 전해들을 땐 그대로 믿지 못했어요. 처음 출품한 작품으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영광이었고 황홀했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대상은 스무 살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을 받은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든든하고 지지적인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영상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영상작품을 접하고 학교의 특화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과 실용 능력을 고루 갖춘 학생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예요.

Q. 전공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콘텐츠전공에서는 TV, 케이블, 위성, DMB, 인터넷방송, IPTV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방송환경 촬영 영상, 음향 편집 및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교과목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현장 기술을 교육받아요. 현장 중심 교육 덕분에 각종 영상 공모전에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양한 영상관련업체들과의 산학협력으로 현장실습과 인턴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Q.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정보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혼자 준비하지 말고 주위 교수님께 조언을 구해 듣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공모전을 준비해 가면서 꼭 상을 받지 않더라도 실력이 느는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명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공모전에 도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갑시다!



언론에 소개된 우송정보대학

이현주 우송정보대학 부총장 “전공, 평생 직업 되길”

〈충청투데이〉 2015년 09월 22일



▶ 추궁하는 교육관.

우송정보대학은 공적으로 전공을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전공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 물론 실력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세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 실무진 이하 모든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와 교수의 학생이 한이음이 돼야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학교 대표 명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과과정을 전면 개편해 운영 중에 있다.

▶ 2016학년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우송정보대학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0년뒤를 내다보면서 전공을 평생 자신의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투자해주는 교육과정을 통해 또 다른 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차별화를 두고 있는 운영 철학.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이 목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글로벌 학과인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없이 입학하지만, 해외를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유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습득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지속적으로 학습 관리하다보니 나중엔 학생들이 실력 뿐만아니라 자신감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다들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또 올해부터 실무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주 학사일정을 12주와 3주로 나눠 체계화했고, 12주는 다시 6주씩으로 나눠 명칭 트레이닝 주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3주는 명칭 프로젝트로 그 동안 대학에서 배운 소양들과 인력양성에 필요한 스킬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줄 수 있는 체계화된 운영 과정이다.

“애완동물 너는 내 운명” 전문대 U턴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

〈충청투데이〉 2015년 09월 25일



▶ 박 씨는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했다.

박 씨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가 성립되면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다. 밤새 아팠던 적이 있는데 몸치기 하루 중일 정도 지지 않고 옆에서 계속 알아주고 화장실에 가서 토할 때 마다 옆을 지키고 있었다.”며 “몸치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인 것 같다. 몸치가 아니었다면 이 분야로 생각도 못했겠다”라며 웃음을 보였다.

방향을 지거봐 온 부모님은 박 씨가 전문대 재입학을 결정했을 때 하고싶은걸 하라며 인정해주셨다고 한다. 전공 특성상 실습 강아지가 서운마리 가랑 있지만, 수업마다 자신의 강아지를 데려와도 되고, 미용 실습이 있는 날에는 학생들이 애완견을 자주 데려오는 모습에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때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지금이 몇 배는 더 행복해요.”
우송정보대 애완동물학부 2학년에게 재학 중인 박현선(24·사진) 씨는 남들이 하는 소리보다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절대 흘려놓지 말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른바 전문대 U턴 입학생으로 강연대 심리학과에 재학하다 2년 전 우송정보대 애완동물학부에 재입학했다. 목표로 하던 강연대 심리학과에 입학했지만 생각과는 다른 전공 내용에 당황했고, 방향이 시작되면서 성격도 굳어질 뻔 했다. 학과를 옮길 생각도 해봤지만 친구관계로 인해 우물증까지 찾아온 박 씨는 고민 끝에 1년의 휴학기간을 가졌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박 씨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강아지를 좋아하는 박 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애완견 동사를 분양받았다. 그리고 몸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느낌이 들었던 박 씨는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했다.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 7명 영국 직업교육기관 국제자격증 취득

〈대전투데이〉 2015년 10월 29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 (Bournemouth & poole college)에서 유학한 7명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영국 직업교육기관 (city & guilds)의 국제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뷰티디자인학부 글로벌 뷰티디자인 코스의 일환으로 영국의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이 높은 기관인 city & guilds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와 공동 운영해왔다. city & guilds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신해 우송정보대학과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는 자격취득을 위해 1년 중 반은 우송정보대학에서 나머지 반은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에서 공부하도록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프로그램을 위하여 2명의 교수(뷰티디자인학부 정지영, 정소정 교수)가 영국에서 city & guilds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국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 대학 관계자가 우송정보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진행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하기도 했다.

김지유 외 3명의 학생은 Level 2 diploma in woman's hairdressing을 취득하였으며, 최재원 외 2명의 학생은 Level 3 diploma in Theatrical, special effects hair & media make-up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5년 글로벌 뷰티디자인 코스의 학생 9명이 ELTS 5.0을 받고 현재 국내에서 city & guilds 자격증 과정을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로 유학할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 정지영 뷰티디자인학부 학부장은 “가장 빨리 한국 대표명점으로 성장시키는 우송정보대학은 세계 유수의 직업교육기관과 협력을 맺어 글로벌 명성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뷰티디자인 코스를 강화해 뷰티 국제 전문가를 보다 많이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GM코리아, 우송정보대학 커먼레일 엔진 기증식

〈대전투데이〉 2015년 11월 29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015년 11월 26일(목)16시, 우송우도테크에서 GM코리아 주식회사와 기존 체결된 산학협력의 협약을 준거하여 교육용 엔진 기증식을 가졌다.

GM코리아 주식회사는 우송정보대학과 기업과 대학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공동개발 및 브랜드스톡 운영을 통해자동차 정비전문가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번 교육용 엔진 기증은 학생들의 실습에 적극 활용되어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기술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세계시장의 자동차 전문 정비 인력수요에 적극 대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원에 분사를 둔 GM코리아 주식회사는 부평, 군산, 창원, 보령 등 국내 4개 사업장에서 연산 92만 대의 완성차, 140만 대의 엔진 및 변속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연구소, 차량 프루비 그라운드, 수천 명의 제품개발 인력을 보유한 한국지엠은 GM의 3대 차량 개발 거점의 하나이며, 디자인센터는 GM의 10개 글로벌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행사는 실제 자동차에서 자동차장비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자동차와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이제 자동차 공학을 전공으로 입학한 1학년들은 기업이 전해주는 실습용 엔진을 보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고 전하였고, 취업을 앞둔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현장에 취업하여 실제 다들 엔진을 기증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GM코리아는 우송정보대학에 차량을 기증하게 된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전하며, 학생들의 기술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증 지원에 약속하였다.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대전투데이〉 2016년 03월 23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3월 23일(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한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되었다.

일학습병행제는 실무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려는 국정과제이다. 일하며 배우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유익한 시스템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지정된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국가직무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 신입직원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참여기업의 모집과 지원, 현장 훈련의 담당, 평가 및 평가기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은 2015년 정부의 지원 없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46개를 유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건설, 요양, 호텔, 경영 등 타 듀얼공동훈련센터와 차별된 훈련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사회의 일학습병행제 확산과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경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은 그동안 우리대학이 창의적 실용교육과 활발한 산학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여 우수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송정보대학, 제 1기 요양보호사 관리 책임자 양성 수료식

〈대전투데이〉 2016년 02월 02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평생교육원은 지난 31일 오후 우송관에서 제1기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시설원장) 양성 교육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1일 우송정보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총 160시간 교육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제3호 서식에 의한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교부됐다. 또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시설원장)의 자격이 부여된다.

우송정보대는 2월부터 제2기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양성과정을 운영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방문간호, 복지증거 근무경력)은 제외인 요양보호사다. 월 60시간 이상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5년이상(60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우송정보대 평생교육원 (042-629-6918)

우송정보대학, 중국 직업학교와 상호우호협약 체결

〈한국대학신문〉 2016년 03월 16일



▶ 정상직 총장(중앙 좌측)과 쓰웨이근 부총장(중앙 우측)이 협약식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이 16일 중국 동관성유복직업학교와 글로벌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호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상직 총장, 쓰웨이근 부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송정보대학은 스마트유복경영과, 세무정보과, 전자정보과, 디지털 영상콘텐츠학부, 기계자동차설비학부, 기계전자자동화과 등에 오는 9월부터 '3+2'와 '2.5+0.5+2'연계협약 유학반을 개설, 진행하게 된다. 중국동관성유복직업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10~20명의 유학생을 우송정보대학으로 보내기로 했다.

'3+2'연계협약 유학은 중국에서 3년, 우송정보대학에서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2.5+0.5+2'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2년 6개월, 우송정보대학에서 1학기, 우송정보대학에서 2년의 교육과정을 밟는다. 이를 통해 중국동관성유복직업학교의 전문교육을 받은 우송정보대학의 전문학사 졸업증을 함께 수여받을 수 있다.

정상직 총장은 “이번 교육협약을 통해 양교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1 Professional 대학
우송정보대

솔인터내셔널스쿨 - 해외 취업, 해외인턴십, 기업맞춤형교육